



2022.7.11.(월)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보도자료

담당 : 빅테크 갑질 대책TF 한준호 의원실(02-784-9160)

민주당 빅테크 갑질 대책TF, 12日 KT 목동 데이터센터 방문

-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망 사용료 지급 거부' 관련,
통신 3사 한데 모여 트래픽 현황 브리핑 및 간담회 예정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빅테크 갑질 대책TF' 소속 의원들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는 12일(화)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KT cloud 목동 DC 2센터에 방문한다.

이날 방문은 '빅테크 갑질 대책TF'의 첫 번째 현장방문으로, 최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소송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망 사용료' 분쟁과 관련해 트래픽 이슈를 직접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KT IDC(인터넷 데이터센터) 주요시설 시찰 및 트래픽 관련 간단한 현황 브리핑 이후 통신 3사(KT·SK텔레콤·LG유플러스) 모두가 참여하는 망 사용료 간담회가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 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글로벌 갑질 사례로 지목되는 '망 사용료' 분쟁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인 SK브로드밴드가 2019년부터 넷플릭스와 법정 공방을 이어가며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망을 증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 중이다.

이에 망 사용료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만 6건에 달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빅테크 갑질 대책TF' 팀장인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은 “이번 KT 데이터센터 방문 및 간담회 개최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공룡의 망 무임승차 방지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그 해결방안을 통신 3사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며, “빅테크 갑질 대책TF는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기업들의 횡포를 막고 망 이용의 공정성을 회복해 우리 국민의 인터넷망 사용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빅테크 갑질 대책TF’는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갑질과 불공정행위 피해를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일 출범했으며, 김병욱, 김상희, 김희재, 변재일, 유정주, 윤영찬, 이상민, 이용빈, 이원욱, 정필모, 조승래, 한준호(이상 12인, 가나다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끝.

2022. 7. 11.
민생우선실천단 빅테크 갑질 대책TF 한준호